

2) 순천의 의병조직

순천 출신이거나 순천에서 활동한 의병장들이 언제 의병을 조직하였고, 활동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순천에서 활동한 의병장

이름	출신지	활동시기	비고
강용언(姜龍彦)	강원도	1908. 전반	안규홍 등이 처단(1908. 4.)
안규홍(安圭洪)	보성	1908. 1~1909. 9.	피체(1909. 9. 25.)
조규하(趙圭夏)	순천 송광	1908. 3~9.	전사(1908. 9. 20.)
강진원(姜振遠)	순천 쌍암	1908. 6~1909. 8.	은신
강승우(姜承宇)		1909. 7.	조규하의 부장
강의연(姜義淵)		~1909. 11.	1909. 11. 활동 중
강여명(姜汝明)		1909. 1.	
황연창(黃淵昌)		1908. 5.	전사(1908. 5. 29.)
노인선(盧仁先)	곡성 죽곡	1908. 5~11.	피체(1908. 11.)
김도진(金道鎭)		1908. 7.	전사(1908. 7. 31.)
박상옥(朴相玉)		1909. 1.	
임창모(林昌模)	보성	1909.	전사(1909. 10.)
최성재(崔性裁)	순천 쌍암	1908. 12~1909. 8.	피체(1909. 8. 29.)
조태식(趙泰植)	순천	~1909. 11.	피체(1909. 11. 25.)
조경원(趙敬遠)	순천 쌍암	~1909. 9.	피체(1909. 9. 25.)
박동주(朴東柱)	순천	~1909. 9	피체(1909. 9. 29.)

앞의 표에 제시된 의병장들의 활동은 일본 기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이들은 대부분 순천이나 그 인근지역 출신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1908년 초에 의병에 투신하여 일제의 야만적인 의병진압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이들은 일제에 끝까지 저항하였던 것이다. 이들 중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벌인 의병장으로는 단연 안규홍을 꼽을 수 있다. 일제는 그를 “가장 용감하고 가장 출몰이 기민하다.”고 평할 정도였다. 안규홍은 곧잘 답살이라 불리었는데, 그것은 꼴베는 꼬마머슴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가 머슴으로 지내오다가 의병에 투신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태한매일신보』 1909년 1월 9일자 「머슴군의병」에

수십 년 동안 머슴을 살았던 한 젊은이가 근처에 있는 머슴 100여 명을 모아 연설하기를 “우리가 남의 집의 고용(雇傭)이나 국민되기는 일반인데, 나라 일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농가에서 구차하게 살겠는가.” 하며 의병을 일으켰다.

라고 실려 있다. 그는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동료 머슴들을 의병에 동참시킨 것이

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가난한 농민들이 의병을 일으킨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고 하겠다. 안규홍은 시장을 돌며 의병의 규모를 늘렸다. 다음의 글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음희 2년 음력 1월 7일에 의병을 일으켜 최초에는 홍양·순천 등의 시장을 돌면서 국정을 알려서 점차 백 명 단위의 부하를 모았다.(한국독립운동사』19, 678쪽)

1908년 음력 정월, 그는 보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고흥과 순천 등지의 장날에 맞춰 돌아다니며 의병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들에게 앞서의 인용문에서 보았던 내용의 연설을 하며 시장 나온 장정들을 설득하였으리라 믿어진다. 양반 유생들이 학연이나 혈연에 의지하여 방이나 통문을 향교나 서원에 돌리는 것과 달리 시장을 순회하며 의병을 모집하는 방법은 평민 중심의 의병부대가 갖는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순천 출신으로 안규홍 의병부대에 가담한 사람으로는 장재모(張載模)를 들 수 있다. 장재모는 안규홍 의병부대에서 포장(砲將)으로 활약하다 순국하였다.¹⁾

그리고 의병장 황병학과 조규하 등에 대한 기록도 일제측 자료에 자주 나온다. 일제는 이들을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의병장이라 하였다.²⁾ 이밖에도 강승우 의병부대의 활동내용이 일제 기록에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런데 그가 강진원을 비롯한 강여명·강의연과 동일 인물인지 알 수 없다. 당시 일제는 의병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의병장의 이름을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과 함께 활동시기와 지역을 참조한다면 이들은 동일인일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다음 표에 보이는 강승지란 인물도 강승우와 동일인이 아닐까 한다.

한편, 조규하 의병부대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일제와 끈질긴 투쟁을 벌였다. 조규하는 송광면 대곡리 출신으로, 임실군수로 재임하던 중에 을사늑약의 체결 소식을 들었다. 그는 변민 끝에 관직에서 물러나 최익현의 의병봉기에 가담하였다가 실패하였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1908년 초에 직접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순천과 곡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구례 수비대·순사대와 곡성군 목사동면 평지동에서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³⁾ 이후 부장이었던 강승우가 의병부대를 이끌고 1909년 중반까지 활동하다가 병을 얻어 잠복하였다. 그후에는 선봉장 최성재가 잔여 의병을 통솔하다가 서면 구정리에서 일본군에 패하여 경남 남해로 잠복하였다. 최성재는 8월에 육지로 다시 나와 구례군 소의면의 지리산 자락에 은둔하려다가 발각되었다. 그는 광주로 호송 도중 탈출하려다가 일본군에 총살되고 말았다.⁴⁾

의병장 최성재가 붙잡혀 희생된 후에 강승우는 활동을 재개한 듯하다. 그는 여수지역까지 활동반경을 넓혔으며, 1909년 9월부터 두 달간 실시된 일제의 야만적인 의병진압작전을 무사히 피한 의병장으로 기록되어 있다.⁵⁾ 만약 강승우와 강진원이 동일인이라면, 그는 1909년 8월에 일제의 폭압적인 군사작전을 피해 남해의 연내도로 들어갔다가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후 그는 고향인 쌍암의 오성산 동굴에 은신하였다고 한다. 10여 년 동안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잠복해 있던 그는 1921년 7월 16일에 발각, 체포되었다.⁶⁾ 7월 19일, 그는 비밀

1) 홍영기, 앞의 논문, 140쪽.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3, 1984, 227쪽.

3) 이일룡 역, 원남폭도사』, 전남일보인서관, 1977, 64쪽.

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5, 495쪽.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5, 826쪽.

6) 황진원 의병장 약진』, 햇불사, 1981, 29·163~168쪽.

을 지키기 위하여 옥중에서 스스로 혀를 물고 자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요컨대, 강승우 의병 부대는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순천 출신의 일반 의병에 대한 몇 가지의 궁금증을 다음의 표를 통해 풀어보기로 하자.

먼저 이들은 대부분 순천이나 그 인근지역 출신이었으며, 1908~1909년 사이에 주로 활동하였다. 다시 말해, 전라도 의병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부응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신분은 의병장이나 일반 의병 할 것 없이 매우 다양하리라 짐작된다. 즉, 의병장이라 하더라도 양반 유생에서 머슴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3차 의병 시기에는 신분적 갈등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순천지역에서 활동한 의병부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순천에서의 반일활동’에 관한 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병부대는 수십 명 단위의 소규모로 활동하였는데, 그것은 유격투쟁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수백 명의 의병을 지휘하는 의병장도 있었는데,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안규홍 의병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안규홍 의병은 다른 의병부대와 합진할 경우 약 500명의 규모를 자랑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에도 약 200여 명의 군세를 유지하다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전투에 임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안규홍을 전해산(全海山)·심남일(沈南一)과 함께 1908~1909년 사이에 활약한 전라도의 대표적인 의병장이라 평하였다.⁷⁾ 그

7) 이일룡 역, 『전남폭도사』, 전남일보인서관, 1977, 9쪽.

순천에서 활동한 일반 의병

이름	직책	출신지	활동시기	비고
박석주(朴石珠)	의병		1908. 6.	피체후 탈출(1908. 6.)
하내대(河內大)	의병	순천 서면	~1909. 4.	귀순(1909. 4. 28.)
이종삼(李從三)	의병		~1909. 7.	피체(1909. 7. 2.)
오용기(吳龍基)	의병	순천 상사	1909. 7~1909. 10.	자수(1909. 10. 15.)
장기원(張基元)	의병		~1909. 9.	21명 동시 자수(1909. 10. 31.)
장성심(張聖心)	의병		~1909. 11.	9명 동시 자수(1909. 11. 7.)
염필갑(廉必甲)	의병	순천 도리	~1909. 11.	피체(1909. 11. 25.)
조혜택(趙惠宅)	의병		~1909.	강승우의 부하
강상조(姜尙祚)	의병	순천 서면	1909. 9~1909. 12.	강승우의 부하
장재모(張載模)	부장	순천 송광	1908. 1~1908. 10.	안규홍의 부하, 전사(1908. 10.)
오윤칠(吳允七)	의병	순천 송광	1908.	
박동규(朴東奎)	후원자	순천 송광	1908.	안규홍·조규하 의병을 후원
조응렬(趙膺烈)	의병	순천	1908.	황병학의 부하, 생존
김형주(金亨注)	의병	순천 주암	1909.	교수형(1910)
오응삼(吳應三)	의병	순천 초천	1908. 12~1909. 3.	강승지 부하, 탈출중 사망(3. 20.)
이기춘(李己春)	의병	순천 초천	1908. 12~1909. 3.	강승지 부하, 탈출중 사망(3. 20.)

밖의 의병장들은 약 100명 내외에서 수십 명 단위의 의병을 지휘하였다.

한편, 의병은 군자금이나 무기를 어떻게 확보하였을까. 이들은 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예컨대, 행군 중에는 지나가는 마을에서 식사를 제공받거나⁸⁾ 사먹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근거지에 잠복 중일 경우에는 1인당 4~5일분의 식량을 휴대하여 스스로 취사하는 경우도 있었다.⁹⁾ 그리고 이들은, 여름에는 주로 노숙하였으나, 겨울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주로 사찰을 숙박지로 이용하였으며, 때로는 마을에 내려와 숙박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고헌순 의병은 연곡사를, 전해산 의병은 영광의 불갑사와 해불암을, 김동신 의병은 문수암을, 그리고 안규홍 의병은 보성 문덕의 대원사와 선암사의 암자인 향로암을 이용하였다. 광양의 백운산에 있는 상백운사와 하백운사도 의병의 근거지로 이용되었다.¹⁰⁾

그런데 식사나 숙영지 문제에서 신발이나 옷가지·무기조달 등까지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이들은 각 면단위로 군자금이나 신발·옷가지 등을 할당하여 징수하기도 하고, 부호에게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혹은 악질지주나 부채지주, 탐학한 관리한테 강제로 빼앗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때로는 주민들에게 지탄받는 부호의 재산이나 곡식을 징발하여 그 일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5, 145·336쪽.

9)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489쪽.

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9, 252~253쪽.

부를 가난한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의병의 좋은 공격대상이 되었는데, 그들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데다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남의 의병들은 무기의 개량과 군사훈련, 유격전술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점차 투쟁역량을 강화해갔다. 이들은 일제의 화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무기의 개량이나 신무기를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 의병들의 주무기인 화승총(火繩銃)은 유효사정거리가 기껏 20m 내외였다. 게다가 심지식이어서 비가 오는 날이나 습기가 많은 날에는 총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일제의 군경은 엄격한 훈련은 물론이고 실전, 즉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치른 경험을 지닌 그야말로 '무적의 전사'들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요즈음의 무기와 별로 차이가 없는 최신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들이 보유한 30년식 기병총과 보병총, 38식 소총, 기관총 등은 200m 거리의 표적을 맞출 수 있었다. 여기에다 그들은 폭발력이 강력한 포병까지 운용하고 있었다.

이에 전라도의 의병들은 군산과 목포항 또는 해안을 통해 신식무기를 은밀히 사들였다. 특히, 군산항을 통하여 총기가 밀수되었는데, 그 덕분에 군산 인근의 들판에 매어둔 소들이 갑자기 사라지곤 하였다. 의병들이 총을 구하기 위해 소를 끌어들여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양총 1정을 소 1마리와 맞바꾸었다.¹¹⁾ 전남지역 의병들은 총기와 탄약을 구입하기 위해 목포에 있는 청국 상인들의 가게를 즐겨 이용하였다. 물론, 일본 군경과 전투과정에서 신무기를 노획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신식무기의 경우, 성능은 좋았지만 가격이 비싼 데다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탄

약을 지속적으로 보급받기란 더욱 어려웠다. 이에 의병들은 자체적으로 재래식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량하기도 하였다. 재래식무기는 비록 성능이 떨어졌지만 매우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었다. 당시 의병들은 재래식방법을 이용하여 화약을 만들었으며, 총과 탄약은 포수들이 사용한 것을 징발하거나 대장간에서 만들어 사용하였다. 화약은 부엌 아궁이 속의 검은 그을음과 소변통의 버케를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평소에 모아두었다가 의병들에게 전달하였다. 탄약과 납은 어망의 추를 사용하기도 하고, 유기장들에게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의병들은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민간인과 산포수들이 소지한 무기를 징발하기도 하였으며, 그들에게 제작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의병들은 화승총의 성능개량과 천보총(千步銃)의 확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천보총은 조선 중기에 발명된 총으로서 조총보다 성능이 뛰어났다. 특히, 사정거리가 1,000보나 된다 하여 이름을 천보총이라 하였다. 그런데 천보총은 18세기 이후 지방의 요새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총을 확보하여 전투능력을 향상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전라도의 의병들은 화승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마침내 이들은 1908년 4월에 뇌관식 화승총을 개발하였다. 이는 화승총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의병의 투쟁역량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수류탄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폭탄을 제조하기도 하였다. 생김새는 고구마와 비슷하였는데, 노란색 화약에 조그만 돌맹이를 섞어 넣고서 딱딱한 곳에 던지거나 발로 밟을 경우에 터지도록 만들었다. 요즈음의 수류탄이나 지뢰의 기능을 가진 폭탄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전라도의 의병들은 화승총에서 신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

11) 黃玹, 『梅泉野錄』 권6, 국사편찬위원회, 1955, 410쪽.

한 무기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이 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며, 주민들 역시 의병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무기의 제작이나 군수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 결과, 전라도지역은 1908년 이후 의병항쟁의 중심무대로 떠오를 수 있었다.

전라도 의병의 반일투쟁이 고조되자, 일본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폭도들의 행동은 극히 교묘하여 대낮에는 양민을 가장하고 공공연히 군청 소재지를 배회하면서 관서의 동정을 정찰하고, 만약 좋은 기회를 잡으면 곧 자객적 행동을 감행, 총기·탄약·재화를 약탈하고 혹은 허를 틈타 저격 기습하는 등 그 은현출몰(隱現出沒)을 미리 헤아릴 수 없었다.〔조선폭도토벌지, 독립운동사자료집』3, 771쪽)

의병의 재빠르고 과감한 기습공격에 일본은 거의 속수무책이었다고 한다. 전남 동부지역의 의병들도 일본군경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천·고흥·여수·돌산 등에 밀정을 파견하였다. 예를 들면 양영만(梁永萬)과 박덕삼(朴德三)은 돌산읍의 주재소, 감시초병의 숙소와 일본인의 숫자와 활동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빗장수로 꾸미고서 침투한 적도 있었다.¹²⁾ 전남 동부지역에서 활동하는 의병들은 위장술에도 능하여 주간에는 흰옷, 야간에는 검은 색이나 다갈색(茶褐色) 옷을 입음으로써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¹³⁾

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4, 439쪽.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16, 151쪽.